

## \* 동창회 소식

### ◎ 이화여대 60년 '동창의 밤' 행사 개최



이화여대동창회는 지난 9월 10일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에서 의대 창립 60주년 기념 동창의 밤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을 윤건일 의료원장, 한운섭 학장, 서현숙 목동병원장, 연규월 동대문병원장 등 주요 보직자 및 동창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김화숙 회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참석해주신 동창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동창 및 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화여대를 이끌어온 1대 동창회장 권분이 박사를 필두로 14대 지현숙 전회장 등 총 11명의 역대 회장들에게 전 동창들의 마음을

전하는 공로패 시상이 있었다. 또한 만찬 및 잔치한마당에선 다양한 이벤트가 열렸으며 의과대학 발전기금으로 1,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 설립 26주년을 맞은 영남대학교 의과대학(학장 김명세 · 18회)이 9월 30일 대구 프린스호텔에서 '제1회 영의인의 밤' 행사를 개최하였다. 의대 재학생과 교수, 학부모, 동문 등이 모두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한운섭 학장이 축사를 맡아 "영남의대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의과대학이 되길 바란다"고 축하였다.



◎ 의대동창회 2005년 송년회가 오는 12월 6일 화요일 오후 6시30분 롯데호텔 2층 에메랄드룸에서 열릴 예정이다.

◎ '이의동창회보' 제32호에 실릴 기사를 모집한다. (문의 : 의대동창회 사무실 T.2650-5782)

## \* 해외교수 동정

### - 우즈베키스탄을 다녀와서 -

응급의학과 정구영 교수

학교의 단기연수를 이용하여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이하 우즈벡)에 두 달간 다녀왔다. 방문 목적은 중앙아시아 의과대학과의 교류 가능성을 탐색해 보고, 이화 의료 선교단의 대상 지역으로서의 적절성을 보기 위함이었다.

우즈벡은 한반도 두 배 넓이에, 인구가 2,700만 명으로 중앙아시아의 가장 중심 지역인 나라이다. 구 소련에서 1991년에 독립하여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독립 이후 독재와 이에 따른 극심한 부정부패·경제적 실패 등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다. 그러나 상황이 어려울 때 신앙적으로는 기회가 되듯이 실제로 북을 전파 속도가 몇 년 전에 비해 몇 배나 빨라졌다고 한다.



우즈벡 의료의 문제점은 의과대학의 교육 상황을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전국에 12개의 의과대학이 있는데 전부 국립 의과대학으로 7년제이다. 각 의과대학의 학생이 적게는 지방 의과대학이 1천명, 많게는 타시켄트 의과대학이 3천명이 될 정도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학생이 많다. 하지만 이를 교육할 수 있는 교육시설이나 병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오후 1~2시면 수업이 끝나고, 임상실습도 대개는 오전에 끝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졸업생의 10% 정도만 수련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수련 기회가 없어 전체적으로 의사의 질이 매우 열악하다.

이러한 교육의 문제가 전체적인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어 국민들이 의사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는 일상적인 수술의 경우에도 이 곳 사람들은 마취 사고로 인한 공포 때문에 사지(死地)로 끌려가는 심정으로 수술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한 병원에서 우연히 만난 정형외과 전문의가 비골 골절조차 감별 진단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이 곳의 의료수준을 통감할 수 있었다.

우즈베키스탄에 체류하는 동안에 연세의대와 교류를 맺은 지 5년이 되는 타시켄트 소아과대학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이 대학은 한 선교 병원을 통해 교류를 시작하여 그동안 주로 교수들의 상호 방문과 한국에서의 훈련을 통해 많은 변화를 이루어 왔다. 우즈벡 최초로 성형외과를 개설하였으며 최근 들어 의과대학 교과과정 개편을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다는 점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변화이다. 이 의과대학의 변화를 보는 우즈벡 내의 반응은 다양하지만 모두들 이런 기회를 가져보려고 하고 있다는 점은 동일하다.

그 중 한 대학이 타시켄트에서 1,0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서부의 중심도시인 우르겐치의 의과대학이며, 이곳을 타시켄트 소아의 대 총장의 소개로 방문하게 되었다. 대학의 규모는 작고 시설도 열악하였다. 병원은 여러 개의 부속병원이 있다고 하는데 방문했던 병원은 약 400 병상 정도의 규모로 두 건물 중 한 건물은 리모델링 중이었다. 장비는 새로 도입한 일제 CT를 자랑할 정도의 수준이었다. 실제 그 도시가 위치한 호레즘(우즈벡의 12개 주 중 하나, 인구 300만)에서 유일한 CT라고 하였다.

우즈베키스탄은 정말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특히 의료 분야는 열악한 상태에 있으며 우리의 작은 자원과 교육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줄 수 있다. 120년 전 미지의 진흙구이 같은 우리나라에 외국의 의료선교사들이 와서 지금 우리의 의료 모습을 만들어 놓았다. 우리는 그들에게 큰 빚이 있다. 그 빚을 이제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우즈벡 그곳이 우리의 사랑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망설이지 말고 일단 손을 내밀면 그분께서 모든 일을 진행하시고 이루실 것이라 믿는다.



- 타시켄트 열방병원에서 열린 선교전략 컨퍼런스에서: 아프가니스탄에 의료선교사로 나가 있는 본교 80년 졸업생 조철현 선생님과 함께

우리가 알게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발행인 · 한운섭   편집인 · 정성철   발행 ·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시 양천구 목동 911-1   전화 · 02-2650-5707   팩스 · 02-2653-8891   제 5 호 < 2005. 9 >

## \* 의학전문대학원 관련 소식

### ◎ 의학관 B동 봉헌식 열려

-첨단 강의실과 실습실 갖춘 의학관 B동 완공-



국내 최고의 여성 의료인 양성의 산실이 될 의학관 봉헌식이 지난 8월 16일 오후 4시 의과대학 김옥길홀에서 거행되었다.

봉헌식은 정몽석 교목실장의 집례로, 식사·찬송·기도·성경봉독에 이어 신인영 총장의 인사말과 함께 이성낙 가천의과대학 총장과 서남수 교육인적자원부 차관보의 축사가 이어졌다.

2007년 이화여대의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을 맞아 신축된 의학관은 연면적 4,336평,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의 건축물로 최첨단 의료 시설 및 교육·연구시설이 들어서 있다. 1층~4층은 이화의료원, 5층~10층은 이화의학전문대학원 전용 공간으로 쓰인다.

신축된 의학관은 5층의 의과학 연구소를 제외하고는 모두 학생을 위한 시설과 교육을 위한 공간으로 꾸며져 있다. 6층은 실습실과 학생회·동아리실로 그리고 7층~10층까지는 최첨단 시청각 시설을 갖춘 계단식 강의실과 강의준비실·소그룹 토의실·PBL 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학생들의 편의를 위하여 매점·복사실·자율학습실 등이 자리하고 있다. 또한 컴퓨터실에는 100여대의 개인용 PC가 설치되어 있으며, 기독교 정신에 바탕을 둔 이화여대의 특징에 맞추어 학생들을 위한 기도실이 마련되었다. 이날 봉헌된 의학관 B동은 2005학년도 2학기 개강과 더불어 학생 오리엔테이션 후 본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한운섭 의과대학장은 "첨단 강의실과 실습실을 갖춘 의학관이 완공됨에 따라 의학전문대학원으로 가기위한 실질적인 토대가 마련됐다"면서 "앞으로 보다 전문화된 의학 교육을 바탕으로 우수한 여성 의료인 양성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 \* 의대 60주년 소식

### ◎ 의과대학 창립 60주년 기념식 성황리에 개최

-학술대회·기념식·체육대회·동창의 밤 열려-



의과대학 창립 60주년을 맞아 9월 9일 학술대회 및 창립 60주년 기념식이 의과대학 김옥길홀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여성과 건강: 성인지의학>의 주제 아래 열린 이날 학술대회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방사선과, 신경과, 신경정신과 등 7개 과와 성인지의학 등 총 8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최경규 교수는 '여성 노인 신경계 질환', 정해원 교수는 '폐경 후 골다공증', 이지수 교수는 '류마티스 관절염', 최혜영 교수는 '유방암의 조기 발견을 위한 선별검사', 성연아 교수는 '한국 여성의 다낭성 난소증후군', 임원정 교수는 '여성고 성주체성', 양세원 교수(서울의대 소아과)는 '여성 사춘기 이상 질환'을 각각 발표하였다. 특히 성인지의학 분야에서는 미국 콜럼비아의대 메리앤 리가토(Marianne J. Legato)박사가 강연하였다.

학술대회 후 기념식은 손운산 교목의 지도로 시작되어 윤건일 의무부 총장·한운섭 학장의 인사말, 구연철 前 학장의 축사, 의대 60주년 기념 동영상 상영의 순서로 이어졌다. 또 김화숙 동창회장 등의 대 발전 및 60주년 행사를 위해 노력한 공로가 인정되는 총 8명에게 감사패가 수여되었다. 이어진 학생 합창 동아리 '코엠'의 기념공연은 참석자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으며, 다함께 교가를 제창하며 60주년 기념식이 성대하게 마무리되었다.

다음날인 1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의대 학생회 주최로 안양천변 운동장에서 의과대학 체육대회가 열렸다. 이날 학생 약 120명, 교수 약 15명이 참여하여 화합의 시간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이날 오후 4시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의대 동창회 주최로 '동창의 밤' 행사가 개최되었다.

### 의대소식지 원고 모집

- ♣ 의대소식지는 분기별(3/6/9/12월) 발행되며, 소식지에 실을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heejee77@ewha.ac.kr (담당:이희정)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 의대 소식지는 의대 홈페이지(<http://medicine.ewha.ac.kr>) 의과대학소식/뉴스레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 의대동창 주소 변경 안내 동창회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T.2650-5782)

## \* 대외협력위원회 활동소식

의학과 B동 712호 기도실을 위한 후원금이 각 계로부터 전해지고 있다. 이화동창선교부에서 600만원을 후원한 데 이어 변재일 국회의원 기도실 후원금으로 500만원을 쾌척하였다. 이 후원금은 기도실 내부 공사 및 운영비로 쓰일 예정이며, 이들은 향후 기독교 정신을 가진 여의사들이 많이 배출됨으로써 사랑의 인술을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후원금을 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도실 내부 공사는 곧 이루어질 예정이다. (후원 문의: 이희정 T.2650-5707)

### ◎이화여대 학부모, 발전기금 1,000만원 후원



의학과 1학년 김형주 학생 학부모(김세연·송순영)가 10월 4일 의학전문대학원 발전기금으로 1,000만원을 후원하였다. 지난 9월 9일 의대 60주년 창립일에 열린 학부모 모임에 참석한 송순영 어머니는 이날 의대 후원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의대 발전에 동참하고자 후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 ◎의학전문대학원 발전기금 및 기숙사 건립 모금 현황

육천만원	의학과 23기
이천만원	박영오(교수)
일천오백만원	한운섭, 하은희, 이경은(이상 교수)
일천만원	이홍수, 정우식, 최경규, 박혜숙, 이화영, 허정원, 한후재, 조영주, 이경자, 박수연, 유경하, 정성민, 최혜영, 서정완, 이미애, 박혜경, 성연아, 정혜원, 이지수, 이지희, 정영해, 이청기, 김치호, 정화순, 강은숙, 성주명, 박은애, 박은미, 김종오, 이진화, 유 권, 박미혜, 최규복, 정성철, 정락경, 구혜수, 신규만(이상 교수), 최보원(동창) 조중남, 김세연(이상 학부모)
육백만원	이화동창선교부
오백만원	김영주, 김명래, 강병철, 김영철, 박시훈, 이주호, 오세관, 이승주, 김경호, 박혜영, 이선화, 이시내, 최유원, 한종인, 심경련, 김승철, 정성애, 김유경, 최희정, 이레나, 오지영, 심기남, 이귀용, 어은경, 김혜순, 임수미, 유은선, 장중현, 박성훈(이상 교수), 변재일(독지가)
삼백육십만원	김광호(이상 교수)
삼백만원	문병인, 김용재, 이영아(이상 교수)
1,100\$	이(안)정옥(동창)
일백만원	이홍동(독지가)
총액	약 6억9천5백9십만원

## \* 의과학연구소 소식

### ◎ 의과학연구소 공간 확장 운영

의과학연구소가 지난 8월 16일 병헌식 이후 의학과 A동 약 275평, B동 약 240평으로 규모가 확장되어 운영되고 있다. A동에는 행정실·회의실·전자현미경실·동물실험실·방사성동위원소실·암실·기기실 등이 자리하고 있으며, B동은 5층 전체를 연구실험실·기기실·세포배양실·암실·멸균실·coldroom·회의실·연구실·휴게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의과학연구소 실험 공간은 앞으로 정해진 임대 원칙에 따라 운용되며, 기간은 1년 단위로 의과대학 대형 연구센터에 우선

적으로 임대한다. 1개 실험 단위는 5평 정도이며 임대료 및 냉장고, 냉동고, Deep Freezer 등 기타 기자재 반입 조건 등에 관해서는 의과학연구소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T.2650-5790)

### ◎전자현미경실 확장 공사, 11월 2일 개소식 예정

전자현미경실 내부 공사가 완료되어 오는 11월 2일 오후 4시 개소식을 갖고 정상 운영될 예정이다. 지난 8월 10일부터 진행된 전자현미경실 확장 및 전면 리모델링 공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으며, 신규 전자현미경(H-7650 HITACHI)이 설치되었다.

## \* 의과대학 새소식

### 1. 의과대학 소식

#### 1) 대학원 소식

##### ◎2006년도 대학원 교과과정 개편 안내

최근 빠르게 발전하는 국내외 의학 연구의 최신경향을 반영하고 다양한 의학과 대학원 학생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의과대학에서는 2006년도 대학원 교과과정을 개편하였다.

개편 내용은 먼저 기존 공동선택 교과목의 석·박사 과정 구분을 폐지하고, 공동선택 교과목의 개설 원칙을 '특정 전공에 치우치지 않고 의학과 전반에 걸친 일반적이고 보편적이며 각 세부 전공 간 통합이 필요한 교과목'으로 정하였다. 이 원칙에 따라 공동선택교과목은 기존 설정 교과목의 통합·폐지, 신규 교과목 설정을 통해 총 18개 교과목을 두기로 하였다.

또한 전공 선택 교과목을 전반적으로 보완하였는데, 각 전공 별로 최신 연구동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기존의 교과목을 폐지·변경하거나 신규 교과목을 두어 총 350개의 전공 선택 교과목을 설정하였다.

##### ◎2005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열려

지난 8월 26일 오전 10시 본교 대강당에서 2005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이 열렸다. 이날 의과대학 졸업생은 박사 5명·석사 13명 등 총 18명이었다.

##### ◎2006년도 전기 대학원 전형 일정 및 장학제도 안내

2006학년도 전기 대학원 모집 요강이 9월 14일 인터넷으로 공고되었으며, 10월 7일부터 21일까지 인터넷 원서 접수가 실시되고 있다. 전형일은 11월 19일이며 합격자는 11월 30일에 발표한다. 전형일정 이외의 자세한 모집 요강은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http://enter.ewha.ac.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일반대학원 의학과외의 경우 본교의 대학원 장학제도 외에 생명과학분야 특성화 사업에 따른 특별 장학금, 기초의학전공자를 위한 특별 장학금(예정) 등 각종 장학금을 통하여 우수 학생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계획 중에 있다.

### 2) 학생 관련 소식

#### ◎하계 방학 중 진료봉사 동아리 활동 활발



지난 하계 방학 중 의과대학 내 진료봉사 동아리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타의 귀감이 되고 있다. 지난 7월 22일부터 31일까지는 본교 학생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기도 여주군에서 'KMSC' 하계의료봉사 활동이 이루어졌으며, 7월 25일부터 30일까지는 '아가페'가 경북 울진군에서 이동 진료·방문 간호·어린이 사역 등을 하였다. 또한 MFC는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강원도 평창군에서 본교 학생 40여 명이 참

여한 가운데 제 43차 하계의료봉사를 갖고 검사를 통한 조기 진단에 중점을 둔 봉사활동을 하였다.

### ◎37대 학생회 주최 'Again 행림제' 개최

의과대학 창립 60주년을 기념하여 학생회 주최로 'Again 행림제'가 개최되었다. 9월 5일에서 10일까지는 미술동아리 '그리민'과 사진반 '아이리스' 작품 전시회가, 6일에는 김도반 '화경량' 시연회가 김옥길 홀에서 열렸으며 10일에는 안양천변 운동장에서 학생 약 120명·교수 약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체육대회가 열렸다. 또한 16일에 열린 황우석 박사 초청 강연회에는 150여명의 학생이 참석하여 'Again 행림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 ◎2005년도 OSCE 및 CPX 시행

2005학년도 OSCE (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가 9월 3일엔 의학과 3학년을 대상으로, 9월 24일엔 의학과 4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3일 시험은 14문항과 휴식 등 총 22개 Station으로 진행되었고, 이어진 24일 시험은 16문항(연결문항 2개)과 휴식 등 총 22개 Station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지난 9월 26일과 27일 양일에 걸쳐 의학과 4학년을 대상으로 CPX (Clinical performance examination)가 시행되었다. 총 문항 6례로 진행된 이날 CPX 시험은 신축건물 의학과 B동 PBL Room 10곳과 OSCE Room 2곳에서 시험이 이루어졌으며, PBL 및 OSCE 모니터링 실에서는 시험 상황을 녹화하며 진행을 점검하였다.



### ◎2005년 의사국가시험 모의고사 시행

지난 7월 15일 2005년 의사국가시험 모의고사 문제 및 R형 문제 평가위원 회의가 총 23명의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본교 삼성교육문화관에서 개최되었다. 이어 9월 13일에는 국시위원회 실무 소위원회가 열려 타 대학 책임자와 모의국시 일정 및 실시방법, 문제점 등을 논의하였다. 한편 모의국시는 1차가 10월 17일과 18일에, 2차가 10월 31일과 11월 1일에 시행된다.

### ◎2005년 임상실습 오리엔테이션 시행

지난 8월 4일에서 5일 양일간 의학과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임상실습 오리엔테이션이 시행되었다. 임상실습 후 학생들은 평가서를 의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의학교육실로 제출하였으며, 의학교육실은 이 자료를 분석하여 3개월에 한번 씩 결과를 각 과로 통보할 예정이다. (담당교수: 최희정 교수, 허정원 교수)

## 2. 교수 및 의료원 동정

### 1) 교수 동정

#### ◎석좌교수

병원	전공	이름
목동	내과	정규원(9월1일자)
목동	외과	최국진(9월1일자)

#### ◎신임교수

병원	전공	이름
목동	치과	이호림(9월1일자)
동대문	내과	류동열(9월1일자)

### ◎퇴임교수

병원	전공	이름
동대문	내과	김도영(6월30일자)
목동	치과	김성훈(8월31일자)

### ◎연구년 교수

병원	전공	이름	기간
목동	내과	정성애	2005.9.1 ~ 2006.2.28
목동	안과	임기환	2005.9.1 ~ 2006.8.31
목동	외과	문병인	2005.9.1 ~ 2006.8.31

## 2) 한국 성인지의학회 창립총회 개최

9월 8일 의과대학 의학과 B동에서 의사 70여 명 및 사회학자·여성학



자 2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성인지의학회가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성인지의학회는 의학

의 연구와 실천에 있어 남녀의 성 차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자 하는 최신의학의 조류이다. 이날 총회에서는 서현숙 이대목동병원 병원장이 학회 초대 회장으로 선출됐으며, 성인지의학의 창시자이자 세계적인 대가인 컬럼비아의 대 메리앤 리카도 박사의 강연이 이어졌다. 이날 리카도 박사는 "해부학적 측면이나 진료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은 큰 차이가 있고 이는 실제 환자 진료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 3) 의료원 동정

### ◎이화의료원, 인터넷 진료의뢰시스템 오픈 기념식 가져

이화의료원은 9월 8일 오후 2시 이대목동병원 대회의실에서 인터넷 진료 의뢰 시스템 오픈을 축하하는 자리를 갖고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번에 오픈한 진료 의뢰 시스템은 사용자의 인터페이스를 고려해 의뢰한 환자정보와 회신소견을 빠르고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하여 이화 의대 동문과 지역 및 협력병원의 원간의 원활한 협진체계구축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장점이다.

### ◎이대목동병원, 소화기센터 오픈

이대목동병원은 지난 6월 30일 소화기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진료에 들어갔다. 기존의 내시경실을 확장하여 쾌적한 회복실과 화장실 등 환자 중심 공간으로 설계 되었으며 최신 내시경 기기가 도입되어 더욱 빠르고 정확한 진료가 가능해졌다. 또한 내시경 전문의가 24시간 대기하고 있어 당일 응급내시경이 가능하며, 치료내시경으로 검진과 치료를 함께 병행할 수 있게 되어 있다.

### ◎이대목동병원 의료지원단 발대식 가져



이대목동병원은 지난 7월 11일 병원 2층 대회의실에서 의료지원단 발대식을 갖고 이대목동병원의 의료봉사활동의 지원을 체계화했다. 의료지원단은 이홍수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의료봉사위원회를 구성, 앞으로 수재민 돕기 의료봉사 등 목동병원의 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돕고 인적·물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